



세계관 Q&A

1. 학교의 공용어

사관학교에서는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합니다. 정식 교과과목으로 영어 및 외국어가 존재하며 다른 지부에서 와서 언어가 미숙한 경우엔 동시통역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40년 현재의 일반인들의 삶

크리쳐로 황폐화된 지역들이 존재하지만 복구가 이루어진 도시들은 **2020년** 현재의 모습과 유사하거나 과학기술부분에서 조금 더 앞서간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빈부격차나 생활의 풍요로움 등은 해당 캐릭터가 어떤 지역에서 자라왔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석 충돌 이전의 세계(2010)는 현재와 같이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황폐화된 지역이 존재하지만 해당 지역들의 복구작업은 각국의 정부에서 주도합니다. 현재도 복구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지역들은 여전히 복구작업이 진행중입니다.

3. 이능력의 유전 여부

부모가 이능력자라 해도 자녀가 이능력자일지는 확률에 따른, 확실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전세계에서 발현하는 이능력자들의 숫자가 매우 적은 점을 감안했을 때

부모의 능력이 자식에게 유전되는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매우 희귀한 케이스일 것입니다.

4. 유턴트가 받게되는 물질적 지원

사관학교의 학비는 모두 무료이며 필요하다면 소량의 생활비 등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군인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일반적인 군인들보다 높은 연봉과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의 판단 하에 이뤄질 수 있습니다.

5. 일반인들의 크리쳐 지식

사관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 트리온과 크리쳐에 대해선 통상적으로 알려진 사실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하지만 유전자 변이나 트리온의 파동, 원자 구조 등은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가르치지 않을 내용들이라 판단됩니다.

6. 현재의 군사시설 및 무기

일반 군대는 D급 이하의 크리쳐들을 상대하며 시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능력자가 존재함에도 일반적인 무기들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등급이 높은 크리쳐들은 자주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고 낮은 등급의 크리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무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군대를 늘리기 위해 무기들의 제작 또한 늘어났고 C등급 이상의 크리쳐들에게도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의 연구 또한 꾸준히 진행중입니다.

7. 트리온 연구

트리온이 위험한 물질인 만큼 민간인이 개인적으로 다루는 것은 금지되며 관련 연구는 정부 산하 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트리올라이트 운석조각은 아주 위험하면서 동시에 중요한 연구대상이므로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일 개인이 소유하였다면 막대한 거금을 지불하고 불법적인 루트로 구입하였다면 가능합니다.

8. 유턴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일반인들에게 유턴트는 크리쳐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영웅적인 이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9. 캐릭터들의 성장 후 정식 전투 투입 시기

원칙적으로는 성인이 되어 정식 유턴트가 된 이후 전투에 투입되는것이 맞지만 사관학교 졸업반은 예비 군인 신분으로 위급 상황시 실전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10. 캐릭터들의 사관학교 지역 배정

본 시나리오는 세 개의 사관학교 중 북미 지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능력자로 발현한 예비 신입생이 세개의 사관학교 중 어디에 배정될지는 랜덤입니다. 학생들의 거주지근처 학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는 하나 한 지부에 너무 많은 학생이 몰릴 경우 남은 지부에 랜덤으로 배정됩니다.

11. 학교 입학 후 외부와 소통 여부

사관학교에서는 입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을 비롯한 통신기기들을 지급합니다. 교내에서만 사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외부와의 소통에 제약은 없습니다.

12. 이능력자임을 숨기는 것이 가능한지

모든 이능력자들은 트리온의 영향으로 인한 고유의 파동을 가지며 기관측은 파동을 감지하는 기술을 발달해 왔습니다. 현재로서 기관의 추적에 대항할 길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간주해 주세요. 기관은 신규 이능력자 색출에 적극적이며, 등록과 입학은 한국 국방의 의무와 같이 강제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숨기는 일이 가능한 하나 매우 어려우며 발각 시 얻는 사회적 불이익이 큼니다.